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표준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



최 근 시사잡지나 신문 등에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을 터인데,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이며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 빈부의 격차,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고 우리의 행복지수를 갉아먹는 요소이므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적인 불평등과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기업·소비자 등 모두가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대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지요.

사회적 책임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에 따라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유치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평가기준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화작업에 착수하여 드디어 ISO 26000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 2010년 5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8차 ISO 26000 총회. 이 총회 이후 ISO 26000은 77개 개발 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93%의 높은 찬성표를 얻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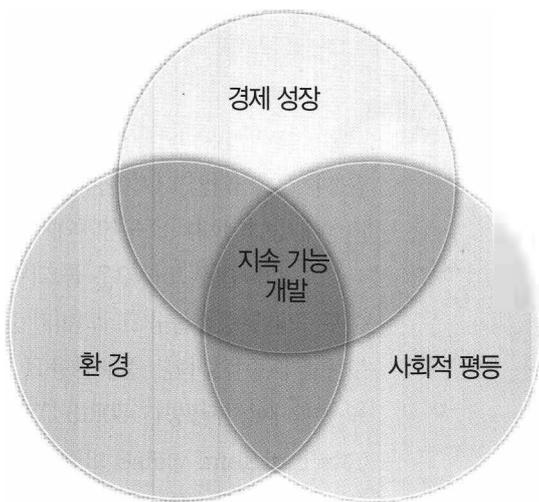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ISO 26000은 77개 개발 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93%의 높은 찬성표를 얻음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최종 결정되었지요. 그리고 2010년 11월에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드선스>가 발간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에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UN과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선언한 지침들이 있습니다만, ISO 26000은 지난 5년간 모두 8차례에 걸친 국제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합의를 통해 도출한 세계적인 기준이니만큼 국제 사회 전반에 사회적 실천 가이드라인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세계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조직의 규제로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조직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확대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미